

간호학사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성미혜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건강과학연구소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Sung, Mi Ha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n 365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nd analysed by the SPSS WIN 17.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2.83. Professional self-concept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satisfaction on nursing, school work credit, interpersonal relationship, health statu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were fou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self-esteem,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ich explained 45.1%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strategy increasing self-esteem is needed to enhanc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Key Words: Professional self-esteem, Personal satisfaction, Self-concept, Nursing stud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들의 건강을 회복, 유지 및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 간호학생 시기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태도 정립이 필요하다(Kang, 2010). 간호교육에서는 간호이론 및 실무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 위상 정립, 간호윤리, 의식 확보 등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Song, 2010).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Arthur, 1990)으로, 전문직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갈 유능

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에게 간호에 필요한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물론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Han, 1994; Kwon & Yeun, 2007).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견지를 형성하므로 간호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이 될 수 있다(Kwon & Yeun, 2007). 이러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Kwon & Yeun, 2007; Schank & Weis, 2001). 특히 간호교육 중에서 임상실습 교육의 비중은 크며(Choi, 2011), 이는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

주요어: 간호학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 자아존중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ung, Mi 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 2-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투고일: 2012년 3월 21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8일

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은 물론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Seo, 2007).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상실습에 불만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간호학생의 간호사로서의 자아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Kang, 2010). 또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스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간호행위 시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간호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Yee, 2004).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학생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간호사로 성장 시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Kang, 201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경험을 분석한 Park과 Ha (2003)는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하고,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등 무가치감을 경험하여 임상실습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복과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적 적응, 행동 양식, 목표달성, 자아통합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간호전문직에 대한 평가 또는 태도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Han, 1994).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을 가져온다(Kwon & Yeun, 2007). Cho와 Lee (2006)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Han (1994) 또한 간호학생의 전문직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사회 이익 추구에 대한 전문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잘 형성될 때 간호사가 되어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데(Kwon & Yeun, 2007),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Kang, 2010; Seo, 2007), 돌봄 지각(Song, 2010), 전공만족, 사회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Kwon & Yeun, 2007)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교육에서의 간호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Arthur, 1990)으로, 본 연구에서는 Arthur (1990)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Choi와 Kim (200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임상실습 만족

실습내용, 지도, 환경, 시간,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Jang, Han, Lee, & Han, 2002)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 (1980)가 개발하고 Kim (2002)이 수정 보완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An, 2006)으로,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 (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 (SEI)를 Kang (198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시에 소재한 1개 3년제 간호학과와 B시에 소재한 1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자료수집이 가을 학기 기간에 이루어졌고 취업 대상인 졸업 학년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3년제 간호학과 학생은 215명,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은 150명으로 총 365명이었다. 표본 수는 G power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변수(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크기의 효과 0.25, 검정력을 95%로 계산했을 때 164명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도구

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Arthur (1990)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Choi와 Kim (200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실무 16 문항(지도력 4문항, 기술 5문항, 융통성 7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Choi와 Kim (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임상실습 만족

Lee (1980)가 개발하고 Kim (2002)이 수정 보완한 임상실습 만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하부영역 즉 실습내용(8문항), 실습지도(6문항), 실습환경(4문항), 실습시간(4문항), 실습평가(5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2)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 이었다.

3) 자아존중감

Coopersmith (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 (SEI)를 Kang (198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 문항으로 4개의 하부영역 즉 자기고양(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자기주장과 확신(7문항) 등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198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2일부터 30일까지였다. 대상자는 해당학교 재학생으로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실시한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대학의 도움을 받아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학생들에게만 배부하였으며 기록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370부를 회수(92.5% 회수율)하였으나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5부를 제외한 365부(3년제 215명, 4년제 150명)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Table 1), 여학생이 91.8%로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고, 학년은 3년제 간호대학의 2학년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제 간호대학 3학년이 27.1%이었다. 종교는 50.1%가 무교이었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9.5%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취업이 52.1%로 과반수를 나타냈으며,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장소는 대학병원이 95.3%로 대부분이였으며, 학점은 평균평점이 3.5-3.9가 74.8%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63.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74.8%,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2%이었다.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 및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 및 자아존중감을

보면 Table 2와 같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2.83 ± 0.31 점이었으며, 임상실습만족은 평균 3.27 ± 0.53 점으로, 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실습내용'이 3.51 ± 0.58 점, '실습시간(기간)' 3.32 ± 0.71 점, '실습환경' 3.31 ± 0.61 점, '실습지도' 3.30 ± 0.72 점, '실습평가' 2.89 ± 0.78 점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76 ± 0.34 점으로, 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자기고양 '지도력과 인기' 2.86 ± 0.42 점, '자기주장과 확산' 2.74 ± 0.40 점, '타인과의 관계' 2.73 ± 0.33 점, 2.72 ± 0.48 점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 ($p < .001$), 대학생활만족 ($p < .001$), 간호학 선택 동기 ($p < .001$), 간호학에 대한 만족 ($p < .001$), 학점 ($p = .007$), 대인관계 ($p < .001$), 건강상태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test로 사

Table 1.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3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SD)	t or F	p
Sex	Male	30	8.2	2.92 (0.32)	1.78	.075
	Female	335	91.8	2.82 (0.30)		
Grade	College diploma 2 grade ^a	116	31.8	2.83 (0.29)	8.35	< .001
	College diploma 3 grade ^b	99	27.1	2.87 (0.27)		
	Baccalaureate degree 3 grade ^c	79	21.6	2.69 (0.28)		
	Baccalaureate degree 4 grade ^d	71	19.5	2.92 (0.35)		
Religion	Yes	182	49.9	2.85 (0.30)	1.77	.077
	No	183	50.1	2.80 (0.31)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	111	30.4	3.03 (0.28)	44.17	< .001
	Average ^b	217	59.5	2.75 (0.27)		
	Dissatisfaction ^c	37	10.1	2.66 (0.30)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Suitable school work ^a	16	4.4	2.88 (0.34)	8.15	< .001
	Suitable one's personality ^b	79	21.6	2.97 (0.27)		
	Inducement ^c	68	18.6	2.72 (0.32)		
	Employment ^d	190	52.1	2.81 (0.30)		
	Others ^e	12	3.3	2.65 (0.20)		
Satisfaction on nursing	Satisfied ^a	177	48.5	2.98 (0.27)	58.70	< .001
	Moderate ^b	169	46.3	2.69 (0.23)		
	Dissatisfied ^c	19	5.2	2.58 (0.32)		
Site of clinical practice	University hospital	348	95.3	2.83 (0.31)	0.36	.718
	General hospital	17	4.7	2.80 (0.29)		
School work credit	$\geq 4.0^a$	31	8.5	2.81 (0.29)	5.07	.007
	3.5-3.9 ^b	273	74.8	2.85 (0.30)		
	3.0-3.4 ^c	61	16.7	2.71 (0.3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231	63.3	2.89 (0.30)	5.78	< .001
	Commonness	134	36.7	2.71 (0.28)		
Health status	Good	273	74.8	2.86 (0.30)	3.75	< .001
	Commonness	92	25.2	2.72 (0.29)		

후 검정한 결과에서 3년제 2학년(2.83 ± 0.29), 3학년(2.87 ± 0.27), 4년제 4학년(2.92 ± 0.35)이 4년제 3학년(2.69 ± 0.28)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대학생생활에 만족함(3.03 ± 0.28)이 보통(2.75 ± 0.27)과 불만족함(2.66 ± 0.30)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다. 본인의 적성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함(2.97 ± 0.27)이 타인에 의해 선택함(2.72 ± 0.32)과 직업 때문에 선택함(2.81 ± 0.30)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간호학에 대해 만족함(2.98 ± 0.27)이 불만족함(2.58 ± 0.32)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다. 학점이 3.5-3.9인 경우(2.85 ± 0.30)가 3.0-3.4인 경우(2.71 ± 0.32)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다.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 및 자아존중감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 및 자아존중감도 간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만족($r = .469, p < .001$), 자아존중감($r = .501, p < .001$)과 강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만족은 자아존중감($r = .182, p < .001$)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한 결과, 상관관계는 -0.13에서 0.48로 0.8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90으로 자기상관성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N = 365)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1.81	4.00	2.83 (0.3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1.94	4.85	3.27 (0.53)
Contents	1.50	5.00	3.51 (0.58)
Guidance	1.50	4.83	3.30 (0.72)
Environment	1.50	5.00	3.31 (0.61)
Time	1.00	5.00	3.32 (0.71)
Evaluation	1.00	5.00	2.89 (0.78)
Self-esteem	1.84	3.69	2.76 (0.34)
Self-enhancement	1.40	4.00	2.72 (0.48)
Personal relation	1.86	3.57	2.73 (0.33)
Leadership & popularity	1.00	4.00	2.86 (0.42)
Assertiveness & confidence	1.57	3.86	2.74 (0.40)

Table 3.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469 ($p < .001$)	
Self-esteem	.501 ($p < .001$)	.182 ($p <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Self-esteem

Predictors	B	SE	β	t	p
(Constant)	1.70	.15		10.88	<.001
Self-esteem	.31	.03	.34	8.05	<.00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17	.02	.29	6.90	<.001
Satisfaction on nursing	-.13	.02	-.25	-5.91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6.48	.02	-.10	-2.40	.017

Adj R² = .458, F = 77.91, p < .001.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79-0.84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8-1.25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주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 변량 분석에서 임상실습 만족,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학년, 대학생활만족,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학에 대한 만족, 학점, 대인관계,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24.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 간호학에 대한 만족, 대인관계가 포함되어 45.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 (2010)의 연구에서 3.17점으로 나온 결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Yee (2004)의 연구에서 2.94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Seo (2007)의 연구에서 2.74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높은 것이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사한 한 Song (2010)의 연구에서 2.75점으로 나온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보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느낌과 견해가 긍정적이며 기대수준이 높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낮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나타낸 것은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지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은 5점 만점에 3.2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eo (2007)의 연구에서 2.64점, Han (2000)의 연구에서 2.78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학

생들이 종합병원에서 실습을 하여 실습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임상실습을 받은 결과라 사료되지만 선행연구에서 실습기관이 명기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추후 실습기관별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하부영역 별로는 실습환경, 실습지도, 실습내용 순으로 실습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2001)의 연구에서 실습내용, 실습환경 순으로 실습만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95%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Lee (2001)는 교육기관이 자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수와 병원과의 유기적 산학 협동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임상실습으로 인해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좌절감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기관이 부속병원이거나 교수진과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 지속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교수와 병원과의 유기적 산학 협동관계가 원활하여 실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7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An (2006)의 연구에서 2.74점,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 2.7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적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An, 2006). 따라서,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다양한 임상상황에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호학생의 학년, 대학생활만족,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학에 대한 만족, 학점, 대인관계, 건강상태에 따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n (2006)의 연구에서 학년, 소득, 생활수준, 부모의 학력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2010)의 연구에서 성별, 종교, 학업성적, 간호학 선택 동기,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어려웠던 대인관계, 주실습지도자, 주된 실습기관, 실습량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학 선택 동기와 대인관계가 이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간호학 선택 동기와 대인관계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2010), Seo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은 이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상실습 만족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Lee (2003)는 임상실습 만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실습 전 교육의 강화, 평가 기준의 공지, 단순 반복적인 실습내용의 조정, 실습 시간의 준수, 실습 관련 참고도서의 비치 및 기타 편의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Kang 등(2006)은 실습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임상실습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임상실습 만족의 하부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실습시간과 실습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지각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일치되게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고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개인의 성취, 직무만족들과 관련이 있다(Ha & Choi, 2005; Park, 2000).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예측하는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24.9%로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won과 Yeun (2007)의 연구와 Cho와 Lee (200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이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37.5%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Kwon & Yeun, 2007)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명력이 45.8%인 결과와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 37.5%의 설명력을 나타낸 결과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자아존중감 외에 임상실습 만족과 간호학에 대한 만족 및 대인관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임상실습의 만족과 임상수행 능력이 저하되며, 더 나아가 간호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간호전문직 개념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Lee, 2004),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 이들 요인들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존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향후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규명되지 못한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 및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M시에 소재한 1개 3년제 간호학과와 B시에 소재한 1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2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및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p < .001$), 대학생생활만족($p < .001$), 간호학 선택 동기($p < .001$), 간호학에 대한 만족($p < .001$), 학점($p = .007$), 대인관계($p < .001$), 건강상태($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 만족($p < .001$), 자아존중감($p < .001$)과 강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은 자아존중감($p < .001$)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 간호학에 대한 만족, 대인관계가 포함되어 45.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 만족, 자아존중감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이며, 임상실습 만족, 간호학에 대한 만족, 대인관계가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간호교육의 내용에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학회나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가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 하위영역중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실습시간과 실습평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개선책의 마

련을 제한한다.

셋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An, K. S.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elf-esteem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Arthur, D. (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Cho, H. Y., & Lee, G. Y.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 163-173.
- Choi, E. Y., & Kim, G. H. (2000).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nephrology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 345-355.
- Choi, J. Y. (2011).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for nursing students: 2006-2009.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7(2), 87-9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 A: Freeman.
- Ha, N. S., & Choi, 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1(1), 13-21.
- Han, A. K. (1994). A study on profess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Junior College*, 14, 149-158.
- Han, S. J.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 132-146.
- Jang, I. S., Han, S. H., Lee, M. J., & Han, M.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health practic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 423-435.
- Kang, H. O. (2010).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ang, J. G. (1986). *Effect of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 career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ang, J. H., Kim, S. M., Park, S. Y., Seo, J. H., Cho, M. S., Choi, B. R., et al. (2006). Nursing University students'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Bulletin of Ewha Nursing*, 40, 116-127.
- Kim, K. S. (2002).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or clinical performance. *Bulletin of Choonhae College*, 14, 221-237.
- Kwon, Y. M., & Yeun, E. J.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285-292.
- Lee, J. O. (2003).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training for students of nursing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gnam University, Daegu.
- Lee, S. 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 333-348.
- Lee, S. J. (198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or clinic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 41-52.
- Park, H. N. (2000). A study on the changing in Self - esteem and depress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fter voluntary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304-317.
- Park, J. W., & Ha, N. S.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1), 27-35.
- Schank, M. J., & Weis, D.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17, 226-233.
- Seo, W. H. (2007).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ong, H. R. (2010).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Yee, J. A. (2004).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 325-334.